

2021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
가정의 달 특별초대기획전시

김억의
목판화
국토를
걷다
展

The Exhibition;
KIM EOK's Woodcut Prints
- Walk through National Soil

김억 남도십경 - 목포 유달산
61×37cm 한지에 목판 A.P4 Ed. 31 2017



| 2021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
| 가정의 달 특별초대기획전시 |

김 억의
목판화
국토를
건다
展

The Exhibition;
KIM EOK's Woodcut Prints
- Walk through National Soil

2021. 5. 7. FRI

2021. 6. 27. SUN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1층

※ 휴관일 : 매주 월요일(관람료 무료)

주최
주관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58729 전남 목포시 유달로 116 ☎061-270-8300

인사말

The Exhibition ; KIM EOK's Woodcut Prints -
Walk through National Soil

신록의 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에서 특별한 초대 기획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토 인문주의’ 목판화작가이자 이 시대의 ‘김정호’로도 불리는 김 억 작가의 『국토를 걷다展』을 개최해, 수준 높은 목판화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목포의 유달산부터 금강산까지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역사적 서사가 함께 더해진 실경산수 작품 39점을 통해 우리 국토의 산맥과 바다, 그리고 그 속에 녹아든 삶의 모습과 정서를 함께 느끼며 팔도강산의 다양한 모습을 조망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을 위시해 우리시는 예향의 위상 정립에 앞장서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예술작품 전시로 지역민과 목포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초대 기획전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름다움과 감동을 기록한 이번 전시회가 잠시나마 쉬어가는 여유와 활기가 되어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경험을 만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목 포 시 장

축사

The Exhibition ; KIM EOK's Woodcut Prints -
Walk through National Soil

자연의 싱그러움이 날로 생명력을 더해 가는 계절,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가정의 달 특별초대 기획전시 ‘김 억의 목판화 국토를 걷다展’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을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들께서 문화, 예술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은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도시의 문화적 역량이 중요합니다.

문화, 예술이 하나의 산업,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지금, 이러한 역량이 있었기에 지난해 목포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시민들께 제공해 주는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초대전은 우리나라 팔도강산을 누비며 장소와 풍경이 가지는 상징성과 함께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목판화에 담아낸 작품 전시로써, 자연과 역사, 인간의 삶이 어우러진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인문지리적 재조명을 통해 우리 국토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달 5월에 마련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가족과 함께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이 앞으로도 수준 높은 작품으로 시민들의 가슴에 깊이 자리 잡아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문화와 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목포시의회 의장

개요의글

2021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가정의 달 특별초대기획전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전남·공립13-2014-01호)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팔도강산을 순례하듯 누비며 목판에 담아내는 ‘국토 인문주의’ 목판화가이자 이 시대의 김정호로 불리우는 김 억 특별초대기획전시 <국토를 걷다>를 마련하였다.

김 억(본명 김종억)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후 ‘80년대 목판이 민중미술로 각광 받을 무렵,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마련한 그룹전 ‘목판오묘 나무’를 통해 본격적으로 판화작업에 정진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부터 30여 년이 넘도록 판화작업에 몰입해 오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판화예술세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길은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물길은 자연을 노래한다.”

물은 살아있음과 생성을 의미하고 길은 사람들의 삶이나 인생의 여정 혹은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물길과 길의 흐름은 유연하게 풍경들을 조율하며 자연과 인간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우러지며 만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살아 숨쉬는 자연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며 응집하는 역사와 자연과 인간을 어우르고 있다고 보여 진다. 자연이나 국토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의해 적극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묘사해 내면서도 여행의 경험과 자연적인 풍광에 인문 지리적인 관점을 더하여 길을 걷고 또 바라본다.

- 김 억 작가노트 中에서 -

김 억 작가는 우리국토를 기행하며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정서, 그들의 터를 직접 발로 답사하면서 취재하고 목판에 풍경화한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 곳의 역사와 문화를 파헤쳐 그 결과를 목판화 풍경으로 보고하는 김 억의 인문적 예술성을 소설가 박태순은 ‘국토문예학’이라 정의하였다.

“ ‘자연성-인문성 국토’와 목판화업의 아름다운 만남, 이를 위하여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국토공간에서 국토 시간 끄집어내기’이다. 국토시간은 지질학적 시간, 문화인류학적 시간, 역사사회학의 시간 그리고 인공적인 시간(시계의 의한 시간)을 모두 오늘에 당도록 연장시킨다. 이런 다채색의 국토시간들을 한꺼번에 통시성과 공시성으로 수용하고 있는 국토공간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야량인가. 화가로서는 국토의 재발견이고 목판화 작업으로서는 국토의 신발견이다...”

박태순 작가는 위와 같이 김 억 국토작업의 당위성을 말했다. ¹⁾ 국토문학과 국토미술이라는 개념 하에 문학영토의 국토답사가 간접화법의 서술이라면 미술영토의 국토섭렵은 직접화법의 묘파인 것이다.

1) 박태순, 『2009 김억 개인전 서문 ‘국토문예’ 중에서』 (2009)

김 억 작가의 작품들은 목판이라는 표현 형식을 빌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통적인 산수화의 표현 방식과 조형 요소들을 담고 있다. 어떤 목판화 작가는 칼 맛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선을 질박하고 굵게 표현하기도 하나, 김 억 작가는 칼끝의 흔적은 사라지고 칼끝이 붓이 되어 산수의 이상 정신을 목판에 새겨 실경을 넘어선 또 다른 경지를 제시한다.

“ 지도(地圖)와 지지(地誌)는 불가분의 관계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틀로 여겨진다. 이 원형을 김정호에게서 찾아볼 수 있거니와 우리는 김억의 작품에서 이러한 지도와 지지의 모습을 함께 살필 수 있다. 부감시법과 연관하여 작가에게 영향을 끼친 안건의 <몽유도원도>(1447, 한국의 중요문화재, 일본 덴리(天理) 대학 중앙도서관 소장)는 꿈속에서 북송아랫이 활짝 핀 낙원을 거니는 모습을 마치 생시처럼 기억해내어 부감법으로 그린 그림이다. [중략] 김억은 “작품에 어떤 장소나 풍경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기보다는 그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나 이야기를 강조해서 담아내고자 한다.” [중략] 작품은 멀리서 한 눈에 보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여유롭게, 위와 아래로 혹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느긋하게 훑어보면서 볼 때에 작품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우리는 그의 생생한 경험을 따라 작품을 바라보며 굵이굵이 흘러가는 강물, 산길과 들판, 언덕과 산천을 누비게 된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작가에게서 한국인의 미의식, 미적 정서와 생활정서 및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중략] 김억의 작품에서 겸재 정선(1676~1759)의 진경산수정선에 맥이 닿아 있는 생태목판화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공존하고 상생하는 생태적 관점은 다시점(multiview)으로 모아져서 전경적 사생(全景的寫生)을 이룬다. <금강전도>(1734, 국보 제217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는 겸재 정선이 금강의 겨울 만폭동(萬瀑洞)을 중심으로 산 내부의 전체 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원형 구도의 윗부분에 비로봉(毗盧峰)이 우뚝 솟아 있다. 실경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다시점과 부감법을 토대로 경관에서 받은 감흥과 정취를 회화적으로 재구성한 진경산수화라 하겠다. 정선은 스스로 국내 명승지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사생함으로써 비로소 중국화의 영향을 떨쳐내고 우리 산천에 고유하고 적합한 진경산수화의 기원을 세운 선구자이다. 정선의 시도와 맥락을 이어받은 작가 김억은 멀리 있는 것도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가깝게 그리고자, 서구적인 원근법이 아니라 다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김억의 작품에는 투시화법의 소실점(vanishing point)으로 멀리 사라지는 아득한 길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 멀지 않게 뚜렷이 보이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적인 길이 있다. 저 멀리 들길이나 산길을 거니는 사람들, 들녘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가까이 눈에 들어오고, 그 주변 경관까지 그림 안에 품을 수 있으며 생활의 자태와 어우러진 삶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 ”

위의 글은 2020년도 중진작가초대전<Re-Play 남도견문록>(광주시립미술관) 도록에서 김광명이 쓴 평문 ²⁾ 일부 내용으로 김 억 작품의 모티브에 대한 원천을 서술하였다. 김 억 작가는 김정호의 세밀함과 안건의 웅장함, 겸재 정선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영토를 참된 풍경으로 구현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 또한 전국의 명승과 경관들로 백두에서부터 금강산과 강원도,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한반도의 남단 전라도와 동쪽의 끝 독도까지 방방곡곡의 역사와 문화, 지리를 토대로 산길과 물길이 함께하는 삶의 터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이 담긴 목재에 이야기를 새겨, 나무의 결과 함께 우리의 생활사를 풀어낸 김 억 작가의 국토기행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예술이란 늘 새로운 것을 찾고, 탐구하고, 불가능의 경계를 넘고자 하는 도전이다. 김 억 작가의 삶의 일부이기도 한 국토횡단을 통해 목판화로 재탄생한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을 인문지리적 재조명으로, 우리 사회의 일부로서 항상 함께 존재하지만 장소성과 공간감의 차이로 먼 이상향처럼 느껴지는 국토에 대해 새롭게 인식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큐레이터

김 유 진

2) 김광명, 「광주시립미술관」 in 『Re-Play 남도견문록』 (2020)



국동대혈 152×62cm, 한지에 목판, Ed.12,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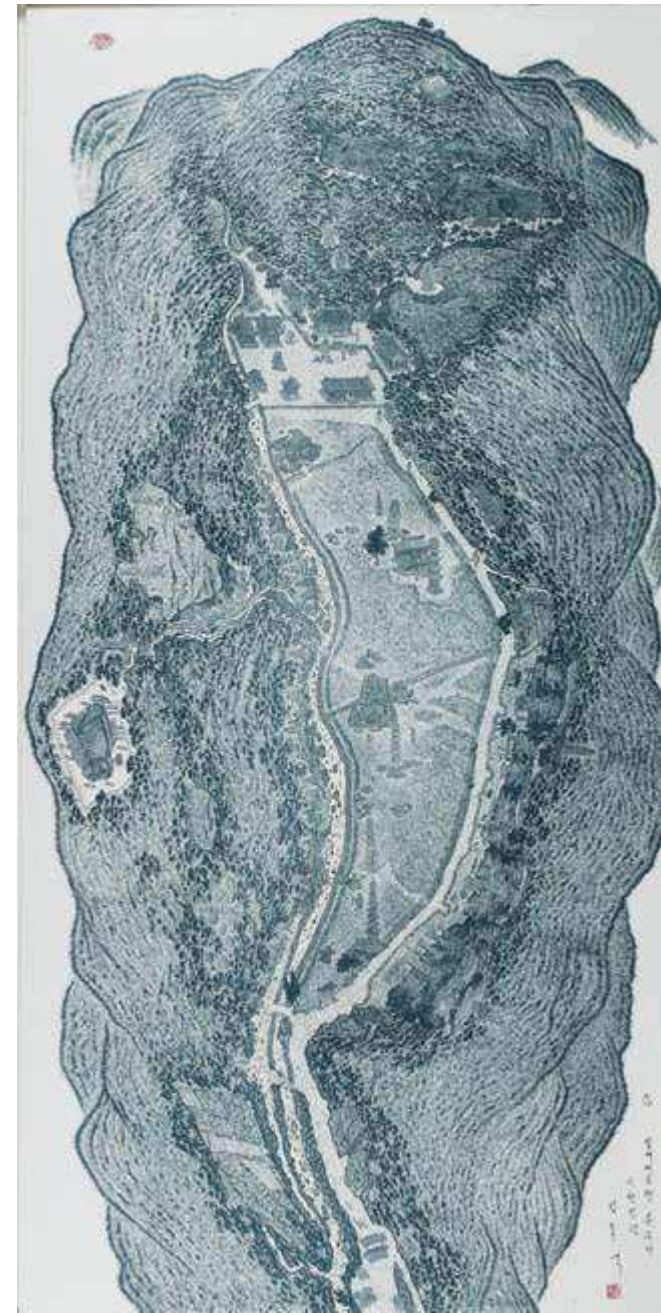
백두산 비룡폭포 152×62cm, 한지에 목판, Ed.12, 2008



금강산을 바라보다 50×219cm, 한지에 목판, Ed.7, 2019



지리산 하동 평사리 167×276cm, 한지에 목판, Ed.7, 2020



일어서는 땅 운주사 180×90cm, 한지에 목판, Ed.12, 2001



한강-동호 31×130cm, 한지에 목판, Ed.12, 2012



한강-성산교 31×130cm, 한지에 목판, Ed.14, 2012



한강-당인리 31×130cm, 한지에 목판, Ed.14, 2012



한강-한남동 31×130cm, 한지에 목판, Ed.15,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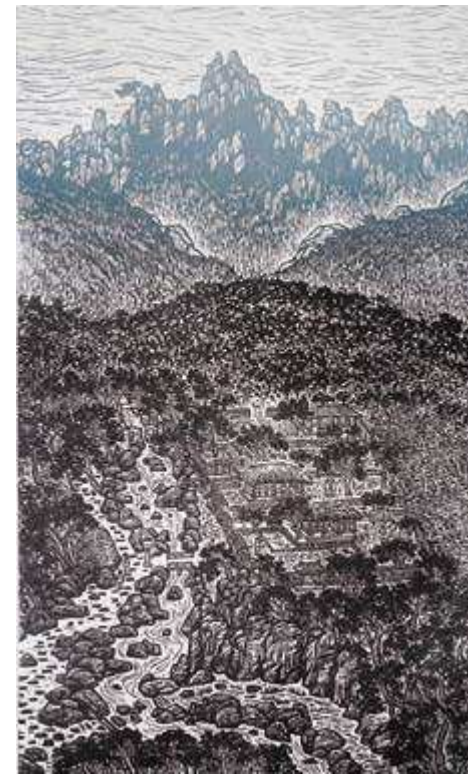
해남 우수영 울돌목 88×260cm, 한지에 목판, Ed.7, 2016



남도십경 - 목포 유달산
61×37cm, 한지에 목판, A.P 4 Ed.31, 2017



남도십경 - 영산강
61×37cm, 한지에 목판, A.P 4 Ed.31, 2017



남도십경 - 강진 백운동별서
61×37cm, 한지에 목판, A.P 4 Ed.31, 2017



남도십경 - 진도 윤림산방
61×37cm, 한지에 목판, A.P 4 Ed.31, 2017



남도십경 - 화순 운주사
61×37cm, 한지에 목판, A.P 4 Ed.31, 2017



남도십경 - 화순적벽
61×37cm, 한지에 목판, A.P 4 Ed.31, 2017



남도십경 - 장성 백암산 백양사
61×37cm, 한지에 목판, A.P 4 Ed.31, 2017



남도십경 - 해남 달마산 미황사
61×37cm, 한지에 목판, A.P 4 Ed.31, 2017



남도십경 - 담양 면양정
61×37cm, 한지에 목판, A.P 4 Ed.31, 2017



남도십경 - 진도 바닷길
61×37cm, 한지에 목판, A.P 4 Ed.31, 2017

PROFILE



김 억 (金 億)

본명: 김 종 억(金 鍾 億)

약력

1984년 홍익대 미술대학 동양화학과 졸업
1986년 홍익대 대학원 동양화전공 졸업
한국현대목판화협회 회장 역임 등

개인전(총 20여회 개최)

2020 김억의 목판화-국토서사전(진천판화미술관, 진천)
2018 김억 목판화전(YTN ARTSQUARE, 서울)
2017 목판화가 김억의 국토진경 /순화동천 (서울)
2016 김억의 목판화 남도풍색/나무화랑(서울)

주요단체전전(총 250여회 참여)

2019 경기 시각예술성과 발표전 生生化化- 흠어진 생각 조합된 경험(단원미술관, 안산)
2018 dtc갤러리 연례기획전-자연의 터 인간의 무늬(dtc갤러리, 대전)
2016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남 두륜산 대흥사 전(대흥사, 해남)

공공미술 프로젝트 및 설치 (총 7회 설치)

2014 포항성모병원 로비 벽화 설치(포항)
2009 안성 신기리-호랑이가 살던 마을마을지도 상감 도자기 제작 설치(안성)
2008 영산전자상가 지하통행로 공공미술 설치(서울)
대전 정병이 마을 담장 설치(대전)
2007 행정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종촌..가슴에 품다(세종시)
2000 지하철 잠실역 역사내부 미술장식품 설치(서울)
1999 환경 테마 열차 미술 설치 운행(서울 1호선 전철)

주요 작품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부산시립미술관, 생거진천 판화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 오산시립미술관, 성남시립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 포스코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청강문화산업대학,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 2021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
가정의 달 특별초대기획전시 |

김 역의
목판화
국토
를
건다
展

The Exhibition:
KIM EOK's Woodcut Prints
- Walk through National Soil

주 관 · 주 최  목포시

발 행 처 목포시 문화예술과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발 행 일 2021.4

전시 · 기획 김 유 진

디자인·출판 윤 슬 T.061-283-3030

이 팸플릿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초대작가와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1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
| 가정의 달 특별초대기획전시 |

김 억의
목판화
국토를
걷다
展

The Exhibition;
KIM EOK's Woodcut Prints
- Walk through National Soil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58729 전남 목포시 유달로 116 ☎061-270-8300